

고군산 군도를 관광지로... 지역경제 '훈풍' 불어넣는다



군산시가 2017년 3대 핵심과제를 경제활성화, 관광광역화, 어린이행복으로 정하고 행정 역량을 최대 결집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광광역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린이 행복도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관광객 200만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며 현대중공업 사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 준 것도 관광분야의 성과로 꼽힌다.

이에 본보는 2017년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해 근대화유산 중심의 관광(육지관광)과 연계한 천혜의 비경을 갖춘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객 300만 시대와 관광광역화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산시의 노력을 살펴본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대비 관광기반 시설 조성

군산시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주변 관광기반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행정자치부 주관 '2017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10억원을 확보해 2021년까지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과 신시·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각 5억원과 3억원을 확보하여 시설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이 마무리 되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완전개통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관광객 분산효과 및 도서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및 주민소득 기반시설 본격 운영

군산시 옥도면의 16개 유인도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지원되는 특수상황지역으로서 총 172억원이 투자되는 어촌관광기반 및 주민소득기반 6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고군산연결도로 완전개통 시 주민들에 의해 주민소득 기반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적지 않은 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병행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참여의지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아마도 신시도에 사업비 1억원,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두 개 마을을 선정,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자도항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주변 관광기반 시설 확충 옥도면 16개 유인도서 주민소득기반 사업 추진 접근 어려웠던 말도·명도 등에 인도교 연결



무녀도 오토캠핑장

이에 따라 재미와 볼거리 마련 등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섬 관광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져 해양관광객 유치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돼 일정기간 중앙부처의 행정 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어항시설 확충하여 해양관광 거점 도약

관광분야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해양관광 육구는 해양레저 활동의 수요증가로 이어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주변 장자, 무녀1구, 신시·신치항 등 4개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위해 총 36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로 20억원을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착수했으며, 향후 방파제, 물양장, 도로 등 어항기능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판매시설 등 어항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이외 17개 어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개발을 해나갈 계획이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대한민국 최고 명소화

군산의 보물 고군산군도, 이 가운데 접근이 어려웠던 섬 말도, 명도, 방축도가 인도교로 연결돼 군산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국비 136억원 등 총사업비 170억원을 확보하여 2021년 완공 목표로 오는 9월중 착공된다.

고군산군도 최서측에 위치한 유인도서 말도, 명도, 방축도와 무인도서인 보봉도, 광대섬을 포함한 5개 섬을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세계최초의 사업으로 인도교가 완성되면 고군산군도 해양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시는 어촌어항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10개년 단위로 추진 중인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행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군산시는 향후 10년간 722억원을 투입해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말도~방축도 명품 트레킹 코스개발사업(70억원)은 인도교 완공에 발맞춰 추진된다.

옥도면 말도리에 숨겨진 수많은 비경들과 도서자원은 인도교와 연계되어 힐링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군산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형철 군산시 경제항만국장은 "급변하는 도서 지역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도서민 삶의 질 향상과 근대화지구와 연계된 해양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올해 300만 관광객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